

# 광양항 일반부두 운영사 선정 특혜 논란

### 항만공사, 단독입찰 세방과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물류업체 “2인 이상 입찰 국가 계약법 위반” 지적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1단계 일반부두 운영사로 입찰에 단독 참여한 세방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뒷날이 무성하다.

8일 항만공사에 따르면 광양항 컨테이너 1단계 일반(잡화)부두 운영사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운영사 선정계획을 공고했으나 세방이 단독으

로 입찰에 응모해 사업설명회와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세방(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항만공사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광양항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최초로 국토해양부로부터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받아 컨테이너부두에서 일반부두로 기능 전환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 앞서 지난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때는 대한통운, 동방, 동부, 세방, 한진 등 13개 국내 메이저 물류회사들이 대거 참여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항만공사 크레인 매각대금(4대에 42억)이 부담돼 정작 입찰에는 한 업체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공사측은 운영사 선정은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운영업체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화물유치 능력, 항만현대화 기여도, 업체 신뢰도, 참여·운영 형태 및 추가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계약 규정대로 적용하는게 원칙이지만 준용할수도 있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물류업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2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어 단독입찰 경우에는 자동 유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찰 참여를 포기한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 주요 물류회사들 사이에서 1년전부터 특정회사 사전 내정설 등이 나돌아 들리러 설 가능성이 높

다고 판단해 대다수 업체들이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부두로 전환된 광양항 컨테이너 1단계는 5만4급 2개 선석(안벽 길이 700m, 아적장 폭 600m)과 42만㎡의 부지면적을 갖추고 있다.

연 임대료는 47억원으로 1년차 60%(28억원)부터 계약기간 5년간 매년 10%씩 연차적으로 기존 임대료 기준요율을 적용해 운영하고 초기 운영사는 5년후 재계약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지난 7일 여수시 문수동시무소 직원들과 통장단, 새마을 남·여 협의회, 지역 봉사단체 등 문수동민 200여명이 연등전 일대를 청소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 항공축제·대중상 단편영화제·마라톤 동시 개최

## 고흥 ‘축제 3중세트’ 관객몰이

고흥군이 지역 대표축제인 우주항공축제 기간에 대중상 단편영화제 <관련기사 18면>와 마라톤을 함께 개최한다. 축제에 쓰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고,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여겠다는 것이다.

고흥군은 8일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고흥만 용동일원에서 유채꽃과 야생화가 어우러진 봄꽃 향연 속에 고흥군의 대표축제인 우주항공축제와 함께 제50회 대중상 단편영화제, 그리고 고흥우주마라톤을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3 우주항공축제는 ‘우주인은 우주에서 어떻게 살까?’라는 주제로 제1회 어린이 우주인 선발대회, 우주과학 경진대회, 우주생활관 등 80여 가지의 체험 및 과학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축제기간에 나로우주센터와 청소년우주체험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읍면 노래자랑,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 k-pop공연, 전통 놀이기 공연, 실버 공연 등이 매일 번갈아가

며 열리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18일부터 4일간 고흥만과 고흥문화회관 등에서 열리는 제50회 대중상 단편영화제는 유명 가수과 배우들의 축하공연과 함께 레드 카펫, 흥행영화 상영, 전문가와 감독이 함께하는 영화 컨퍼런스, 영화 전문가들의 강의 컨퍼런스, 시상식 등으로 꾸며진다.

레드 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영화배우 신구와 김지영 주연 개막작 ‘불륜’ 상영, 국악 앙상블 시나위의 한국 영화음악 콘서트, 달사벳·소찬휘·강수지 등 유명가수의 축하무대가 예정돼 있다. 영화제 기간 202편 작품 중 50여 편의 본선 진출작이 정해지고, 21일 영화제 마지막 날에는 일반부 10개 부문, 청소년부 1개 부문 등 11개 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일 오전 9시에는 제9회 전국 고흥우주마라톤 대회도 축제 장소인 고흥만 유채꽃길에서 열린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 전남 기능경기대회 내일 ‘광파르’ 순천·목포·여수시 등 3곳서 40개 직종 403명 출전

2013년도 전남도 기능경기대회가 10일부터 15일까지 순천시 등 3개 시에서 열린다.

전남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폴리메카닉스 등 40개 직종에 403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순천공고를 포함한 6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선수들은 주경기장인 ▲순천공고에서 자동차페인팅 등 12개 직종 128명, ▲목포공고에서 메카트로닉스 등 6개 직종 69명,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에서 폴리메카닉스 등 7개 직종 64명, ▲순천청암고에서 피부미용 등 9개 직종 84명, ▲여수공고에서 모바일로보틱스 등 3개 직종 34명, ▲순천교도소에서 미장 등 3개 직종 24명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전남도 기능경기위원회는 도민들의 대회 참관을 유도하기 위해 대회기간 중 지역특성화직종인 돌산 갯감치 담그기 및 이벤트 문화행사로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초코렛 만들기 등을 선보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축제 성격의 가미한 대회로 운영하기 위해 Young Skill 올림피아드(데코레이션 케이크 만들기)를 초·중등부로 나눠 별도 경연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대회 직종별 입상자(1,2,3위)에게는 상장과 메달수여 및 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국가기술자격 가능사 시험면제 등 특전도 부여된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문화·관광형 보성향토시장 개장식. 전남 최초의 문화·관광형 시장인 녹차골 보성향토시장이 지난 7일 박준영 전남지사, 김승남·이낙연 국회의원, 정중해 보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했다. 보성향토시장은 주민과 관광객 등 구름인파가 몰리면서 하루 종일 붐볐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 전북

### 한옥마을서 펼치는 전주 대표 브랜드의 맛·가격 논쟁

## ‘비빔밥·막걸리 토크쇼’ 열린다

### 오는 13일 시민·관광객 참여 마당극 형태 진행

13일 전주 한옥마을 부채문화관에서 ‘비빔밥을 논하고 막걸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마당극 형태의 토크쇼가 열린다.

전주의 대표 브랜드이면서 맛과 가격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비빔밥과 막걸리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전북도가 마련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토크쇼에서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참석해 비빔밥과 막걸리에 대한 문화·역사를 이야기하고, 외국인으로서 서울에서 막걸리집을 운영중인 따루 살미넨(Taru Salminen·핀란드)씨가 전

주 막걸리의 미래를 제안한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최근 논란거리가 된 3만원이 넘는 비빔밥의 등장이고급화 전략인지, 아니면 가격 상승만 견인하고 특색 없는 전주비빔밥으로 전락시키는 상술인지에 대한 논쟁도 여과 없이 전달된다.

마당에 모인 150여명의 시민·관광객들은 누구나 마이크를 잡고 이들 음식의 맛, 가격, 질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마당극 형태로 진행된다. 숙시원하게 말한 다음에는 두루 김치에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는 자리도 마련됐다.

장소가 한정된 탓에 8일부터 5일간

전북도 홈페이지(jeonbuk.go.kr)나 전화(063-280-2591)로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내용은 영상으로 촬영돼 전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전북도는 이처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시내버스·저출산 문제 등 주제를 달리해 연중 ‘비빔밥 토크’를 열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비빔밥이 전주의 대표음식이지만 최근 논란에 대해 시민들 역시 궁금하는 것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 이 같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됐다”며 “비빔밥의 명성을 얻고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질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수령 600년 장사송 복제

국립산림과학원, 문화재청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DNA를 추출해 보존하는 방법으로 복제하기로 했다.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는 장사송은 선운사 도솔암 오르는 길에 있다.

천연기념물 제354호로 지정된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장사송. 고창군과 국립산림과학원, 문화재청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DNA를 추출해 보존하는 방법으로 복제하기로 했다.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는 장사송은 선운사 도솔암 오르는 길에 있다. <고창군 제공>

## 학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 잇단 발생

## 김치 공급업체 지하수 오염 여부 조사 시급

최근 전북지역 5개 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김치 등 식자재 공급업체의 지하수 오염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주와 완주 등 5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지하수로 제조한 김치 때문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5개 학교에 김치를 공급한 A식품 업체의 지하수에서 김

치에서 나온 것과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업체는 2003년에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고 신고해놓고 이후에 자체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올 들어 전주교과 중앙여고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도 ‘노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학교 급식소는 물론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수질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관련 법규는 김치 등을 납품하는 급식업소의 경우 1년에 한 차례 업소 대표가 직접 먹는 물 검사기

관에 의뢰해 수질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주들은 이마저도 번거롭고 수질검사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꺼려 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의 검사 항목에서 ‘노로 바이러스’ 검사 항목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식중독 사고의 대부분이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데도 먹는 물 검사기관의 의무감 사항에 노로 바이러스 검사항목이 빠져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이를 법제화 해 수질 검사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내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310여곳으로 이 중 김치제조 업체만 70여곳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단신

### 남원시, 버스 등 외래어종 수매사업 추진

남원시는 올해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관내 하천 및 저수지 일원에서 강한 번식력으로 토종어종의 알부터 성어까지 닳치는대로 잡아먹는 육식성 어류인 배스 등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란기 이전

인 이달부터 환경사업소부터 섬진강 합류지점의 요천과 금풍저수지 등에서 서식하고 있는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잡아 kg당 5000원씩 모두 2t을 수매할 방침이다.

오는 15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수매한 외래어종은 전량 가축먹이로 재이용하기로 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전주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

전주시는 사평교~법원 앞 교차로(법원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3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신동 대명아파트~분병원 인근 교차로 등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이설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8억여원을 투자해 인후6거리·평화지시삼거리·원당교차로 등에 회전교차로 설치하고 진

북터널 사거리, 서신사거리, 송천중양로 등에 교통섬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신호등 이설, 교통시설물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선정된 법원삼거리, 서신동 대명아파트~분병원 인근 교차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이달 착공해 8월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정읍시, 성희롱·아동학대 예방교육

정읍시는 지난 6일 정읍지역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원장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응급안전 및 성희롱·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성희롱·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행정부 승인 전국민안전공동체 운동본부와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팀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집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 및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순창군 무농약쌈채소 블로거 통해 홍보

순창군 구림면 물통골정비화마을이 주부파워블로거 30여명을 통해 무농약쌈채소를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주부체험단은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순창 물통골 쌈채소를 직접 체험한 후 상품의 다양한 레시피와 이용후기를 블로그, 카페 등 온라

인 커뮤니티에 올리게 된다. 물통골 정비화마을의 대표상품인 쌈채소는 10여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싱싱한 채소로, 그동안 도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인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